**산업기술경영론 특강 소감문**

학번 성명 : 32200327 김경민

학 과 : 소프트웨어학과

제 출 일 : 2022년 10월 12일

특강의 내용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법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소개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개인적으로 정보보호 관련분야로 취업을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취업 정보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지만 책임님께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시는 부분에 공감할 수 있었다. 최근 보안 관련 공모전이나 취업 정보가 많이 올라오고 우리 단국대학교 내에서도 보안 로드맵을 개설해 보안 과목 수강에 대한 지원을 할 만큼 ‘요즘 보안이 정말 중요하고 트렌드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안 관련 연구실이나 동아리가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관련 분야 교수님들께서 유독 활발한 활동을 하며 늘 열정적인 강의를 하시는 것을 보면 보안을 사랑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분야를 전공하는 분들이 많다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LG의 직원분들의 보안 마인드 한마디 한마디가 인상깊었다.

나 또한 보안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관련 과목 수업을 몇 개 듣고 있는데 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에 대해 평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국가 기밀이 노출되어 한 나라가 위험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정보보호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무서운 것인지 실감이 되었다. 또 이전에는 창업에 대해 생각할 때 아이디어와 기술력 그리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특강을 들으며 기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에게도 친근한 마티즈가 해외 진출에 실패했던 사례를 보며 해당 기업의 사업 아이템이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되는 자산이 유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생각하니 생각보다 기업의 기술 유출이 경영이나 마케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중소기업의 경우 그 리스크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고 잘못하면 기업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전에 어떤 기업의 한 직원이 중국의 높은 연봉과 좋은 대우에 혹하여 이직하였으나 기술 정보를 모두 말한 후에는 잘려서 오도가도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봤었던 것도 생각이 났다. 기업에서는 법제도를 기반하여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이나 정보는 사람의 기억에 남고 입을 통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통보안을 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나중에는 출퇴근시 직원들의 소지품 검사만 하는 것을 넘어서 기억을 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하는 식으로 보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했다.

기술 정보 보안를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다양한 법제도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는 내용은 특히 반가웠다. 평소 정보보안이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이를 위해 현재까지 어떻게 조직적인 대책을 세웠는지가 궁금했는데 책임님께서 자료를 공유해주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고 유익했다.